

토종별 멸종 위기 바이러스병 저항성 품종 개발·사업화 등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농진청, 생명·해양분야 6건·인프라분야 1건 등 7건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국립농업과학원 최용수 박사의 연구성과 등 7건이 선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촌진흥청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는 생명·해양분야 6건과 인프라분야 1건으로, 생명·해양분야에서 ▲'토종별 멸종 위기 바이러스병 저항성 품종 개발 및 사업화'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 및 적정 수분공급을 위한 인공지능 관계시스템 개발' ▲'토종 유산균 활용 순식물성 쌀 발효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소비 및 생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과 신품종 개발·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닭의 고온 스트레스 적응 유전자 발굴 및 기작 구명' ▲'기후유전자원 동결보존 시스템 구축'이 선정됐으며, 인프라분야에서 ▲'농장단위의 작물별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 조기경보 서비스'가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토종별 멸종 위기 바이러스병 저항성 품종 개발 및 사업화는 토종별의 에이스라 불리는 '남충봉아부대별' 저항성 품종 2종(한라별, 백두별)을 개발·보급해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멸종 위기 토종별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 및 적정 수분공급을 위한 인공지능 관계시스템 개발은 인공지능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 물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관계시스템 기술을 관련 기업체에 기술이전해 산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토종 유산균 활용 순식물성 쌀 발효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는 국내 쌀 소비를 촉진과 새로운 식물성 식품 시장에 대응하여 우리 쌀과 토종 유산균

을 활용한 쌀도 신소재 개발 기술을 농식품 업체에 기술이전해 쌀 신소재가 함유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소비 및 생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과 신품종 개발·보급은 급변하는 소비·생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사과 신품종(투비에스, 컬러플, 씬머프린스 등)을 개발하고 맞춤형 품종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급 확대, 공동출하를 통해 사과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닭의 고온 스트레스 적응 유전자 발굴 및 기작 구명은 여름철 폭염에 폐사율이 높은 닭의 고온 저항성 닭 육종을 위해 아프리카

의 닭을 활용해 고온 스트레스 특이한 유전자 및 발현 기작을 구명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기후유전자원 동결보존 시스템 구축은 생식세포의 동결보존기술을 확립해 국가기후유전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후대 연구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농장단위의 작물별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 조기경보 서비스는 상세한 기상정보 예측 알고리즘 개발로 농장단위의 작물별, 맞춤형 재해예측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농작물의 기상 재해 최소화에 기여했으며 광역실증을 거쳐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동안 농진청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꾸준히 성과를 이뤄내 현재까지 99건이 선정됐다. 앞으로 농진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의 디지털화, 빅데이터 활용기술 등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농업과학기술 개발과 보급에 집중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가치 창조에 농업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진 연구정책국장은 "농촌진흥청은 농업R&D를 주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목표중심 어젠다 사업 수행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구축, 타 산업과의 융복합 연구 활성화, 지역단위 현장 중심의 R&D 등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맞춤훈련센터 입학 환영합니다

LX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가 지난 29일 맞춤훈련 입학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험형 인턴 신설·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확대

LX, 장애인 채용 내실화 주력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장애인 채용 내실화에 주력한다.

LX는 장애인 맞춤 훈련 프로그램 확대 실시와 체험형 인턴 신설 등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LX는 장애인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함께 장애인 맞춤훈련 채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올해 이를 확대 시행 중이다. 올해는 LX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센터장 이현복)와 함께 지난해 지역특화분야에서 사무분야까지 확대 실시해 지난달 29일부터 5주간의

맞춤훈련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직무훈련, 산업안전, 현장실습 등 직업능력 제고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수료한 학생들은 12월 LX 전국본부에 배치돼 각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LX는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장애인 채용 인턴 45명을 최초로 선발해 LX를 경험하고 공채 시험 및 지적 관련 자격증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동안 LX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2019년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2017~2019년 의무고용비율 기준을 밑돌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

체 채용의 90%를 차지하는 지적장애 분야 지원 시 지적관련 자격증 보유가 필수 요건인데다 산악·도처 현장 등을 다녀야 하는 LX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장애인 퇴직자 증가와 맞물려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는 것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랐다.

이에 따라 LX는 앞으로 장애인 맞춤형 직렬을 개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기차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장애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것 같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해 모수를 찾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도내 화장품기업

수출 돌파구 마련

생진원, 동남아 바이어와

온라인 화상상담회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진흥원)은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광역협력권 13개사 화장품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1:1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장품·뷰티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시장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상담회에는 광역협력권(전북, 제주, 충북, 충남) 화장품·뷰티 기업 13개사가 참가해 베트남, 태국 20개사 유망바이어와 1:1 방식의 화상 온라인 상담을 진행했다.

온라인 상담회에서는 K-Beauty와 한류의 인기가 높아 신남방 뷰티시장 화장품 현지 유통사의 수출 문의가 많았으며, 품목으로는 마스크팩, 앰플, 미백크림 등이 현지에서 인기가 높았다. /김윤상 기자

남원 농어촌공, 환경정화행사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춘성)는 지난달 29일 자매결연 학교인 남원국악고 학생들과 '내 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공사 직원과 국악고 학생 등 150여명이 참가해 남원시를 가로지르는 요전에서 생활쓰레기와 각종 오물을 수거했다. 남원지사에서는 학생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악고와 내 고향 물살리기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춘성 지사장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쁜 학업 중에도 시간을 내서 환경정화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시민 모두가 소중한 자연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실패 두려움 없이 무한한 상상력 '맘껏'

경진원, 시제품·시금형 지원 전북경제 도약 발판 마련
2016년부터 올해까지 메이커 아이디어 328건 지원

#원주테크노밸리에 소재한 ㈜에스엠엔테크는 공기정화살균장치에 들어갈 필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오다, 올해 6월 시금형제작지원사업을 통해 금형을 제작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한 '공기정화살균장치 프리필터'는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지정된 '혁신시제품'에 선정되었고, 상품의 완성도를 높여 제품을 양산하는 등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군산에 위치한 0바의 연구소는 지난 2018년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시소형 미끄럼틀'을 제작했다. 시소형 미끄럼틀은 사용자가 등반을 따라 올라간 후, 반대편에서 시소처럼 기울어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아이디어는 특허로 등록된 후 2018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에 수상작으로 선정되고 서울 코엑스에서 전시됐다.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패와 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무한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조·기술 친화적인 시제품·시금형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진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시제품제작지원사업 295건과 시금형제작지원사업 33건, 총 328건에 달하는 메이커 아이디어를 지원했다.

이러한 성과는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본인의 상상력을 제품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메이커 단계별 지원사업의 노력 덕분이다.

경진원은 메이커의 단계별 성장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지원사업을 제공했다. 1단계로 전문가서비스(상담, 설계, 디자인 등)를 통해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2단계인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제품의 성능과 구조를 실험할 수 있게 했다. 후속지원으로 3단계 시금형제작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아이디어단계를 넘어서 제품 양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설계했다.

시금형제작지원사업을 통해 필터 양산에 성공한 ㈜에스엠엔테크의 이준수 대표는 "시제품·시금형 제작지원사업은 비용절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상품의 완성도를 올리고 금형제작을 통해 제품양산과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지훈 원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제조업의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에 시제품과 시금형 제작은 중소기업 역량강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도내 업체의 기술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신협 체크카드·농식품유통공사 연계 진행
신협, 코로나19 상황 완화 따라 재개 결정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신협 체크카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계해 진행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의 세 번째 농할 외식프로모션을 지난달 30일 오후 4시부터 재개했다.

본 프로모션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8월 15일 잠정 중단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점을 고려해 재개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외식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신협 체크카드(BC계열 카드 포함)로 금, 토 일요일(공휴일 포함)에 외식업소에서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당초 6회 결제 시 1만원 캐시백 지급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1일 최대 2회까지 동일업장에서는 1일 1회 결제 횟수가 적용되며, 금요일은 오후 4시 이후 결제분부터 반영된다. 캐시백은 4회 실적달성 시 다음달 16일에 계좌 입금되며, 16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전영업일에 1만 원이 입금된다. /김윤상 기자

'외식' 프로모션은 신협 홈페이지(www.co.kr) 및 신협 온(온)뱅크,페이북(payboo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사용분부터 결제횟수로 인정

된다. 신협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신협 이용객들을 위해 가까운 신협창구 방문 시 외식프로모션 신청접수를 직접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프로모션 실적 적용 가능한 외식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뷔페, 주류판매점, 일반주점, 주점업 중 BC카드 기준 외식업소 등록 가맹점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할 경우 배달원 현장 결제는 적용이 가능하나 온라인 결제 건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외식업소 결제내역 및 지급 예정 캐시백 금액은페이북(payboo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프로모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산소진 시 종료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신협 홈페이지(www.c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11월 전북 중기 업황 경기전망지수 72.5p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따라 체감경기에 '긍정' 전망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회장 김동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전북지역 중소기업업황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II)는 72.5로 전월대비 4.6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증가세가 꺾인 9월(58.8) 이후에 10월(67.9, 9.1p↑)과 11월(72.5, 4.6p↑) 2개월 연속 반등세가 나타난 수치로, 코로나 확진자수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10.12일)에 따라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의 11월 경기전망은 85.3로 전

월대비 8.5p 상승했고 비제조업 56.5,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50.0, 57.4로 전월과 동일하게 조사됐다. 항목별(전산업)전망을 살펴보면, 내수판매(66.3→66.4)와 영업이익(64.2→64.8)전망은 각각 0.1p와 0.6p 상승했으나 수출전망은(100.0→97.1) 전월대비 2.9p 소폭 하락했다.

11월의 중소기업의 경영여로(복수응답)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72.1%), '인건비 상승'(50.0%), '업체간 과당경쟁'(28.7%), '자금조달 곤란'(27.0%), '원자재 가격상승'(22.1%), '인력확보곤란'(18.9%)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서 국비 지원 90% 이용하세요"

중소·벤처기업 서비스 활용 따른 시간 부담 줄어든 듯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난달 30일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수혜를 받을 수요기업을 현재 계속해 모집중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40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사용액의 9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분야는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동·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채무 불이행, 국제·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지원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해 지원한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공급기업과 그 바우처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비교해가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사업 신청부터 선정, 바우처 사용·결제,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서비스 활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기청은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간소화된 내용은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 제외,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 제외, 플랫폼 인증서 대표자 인증뿐 아니라 실무자 본인 인증도 가능해졌다.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영역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 되었으며,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비대면 경제의 부상 등 기업의 외부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해 디소나미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줄 사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